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박수*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7. 1. 15(일) ~ 2. 5(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Langara College의 규모는 중간정도 이고 시설은 엄청 깨끗하고 좋았다. 학교 안에 팀홀튼, 스타벅스 등의 카페들이 있고 밥을 사먹을 수 있는 곳도 여러 곳이어서 이용하기 좋았다. 그리고 곳곳에 식수대가 있어서 편리했다. 그중에 Student Union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 곳에서는 밥도 먹을 수 있고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고 게임도 할 수 있는 곳이라 항상 학생들이 많았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하계에는 listening test로 반을 나누었다고 했는데 동계는 test를 보지않고 그냥 다 같이 수업을 들었다. 선생님 성함은 Tanya였다. 수업내용은 대부분 캐나다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것이 많았다. 수업방식은 학교에 가면 바인더를 준다. 그 바인더에 있는 활동을 하고 파트너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많았다. 그런데 거의 같은 파트너와 활동을 하게 되니까 Tanya는 다른 사람과도 파트너를 해야된다면서 랜덤으로 파트너를 골라주시는 경우도 있었다. 과제는 홈스테이 인터뷰를 하거나 자신의 저널을 쓰는 것이 다였다. Tanya는 엄청 친절하고 재미있는 분이였다.
Activity	Activity종류는 Museum of Vancouver, Curling, Granvile Island, Vancouver Aquarium, Snowshoeing이 있었다. 이 활동들은 입장료 등의 추가 비용은 없다. 하지만 Snowshoeing을 할 때 한국에서 방수되는 바지나 방한에 필요한 준비물을 가져가지 않으면 빌릴 때 추가비용이 필요한데 너무 비싸다. 그래서 꼭 방수바지, 방수신발, 장갑 등을 가져가야한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밴쿠버는 Raincouver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우산은 꼭 챙겨가야 한다. 한국만큼의 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패딩이나 두꺼운 옷을 챙겨가야 한다.
안전	밴쿠버는 건물들이 대부분 일찍 닫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들어가는 것이 좋다.
숙소	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 외부 숙소( ) 기타( ) 홈스테이 생활은 매우 좋았다. 부모님들이 엄청 친절하고 내 방도 생활하기에는 불편함이 없었다. 나의 홈스테이규칙은 샤워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그것 빼곤 정해진 규칙이 없었다.
식사	우리 홈스테이에서는 아침에는 자기가 알아서 챙겨서 먹고 가는 것이고, 점심은 맨날 샌드위치나 다른 음심들을 싸주셨다. 그리고 샌드위치가 질릴 때에는 학교식당에서 다른 것을 사먹기도 했다. 저녁은 집에 일찍 들어가면 가족들과 함께 먹고, 친구들과 밴쿠버를 구경하다가 늦게 들어갈 때는 외부식당에서 사먹었다.
교통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를 타고 등교했다. 밴쿠버의 대중교통은 정말 효율적이고 편리했다. 버스 말고 트레인도 있다. 우리나라의 전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교통비는 학교에서 compass라는 교통카드를 나눠줘서 따로 비용이 들지 않았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및 여행자보험	약 1,200,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교통비	35.000	페리값

학교활동외 밴쿠버 관광	300,000	
쇼핑	200,000	
하키경기	62,000	
합계	약70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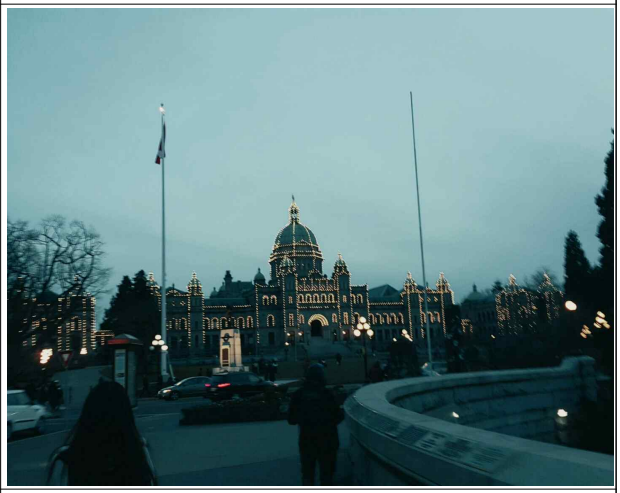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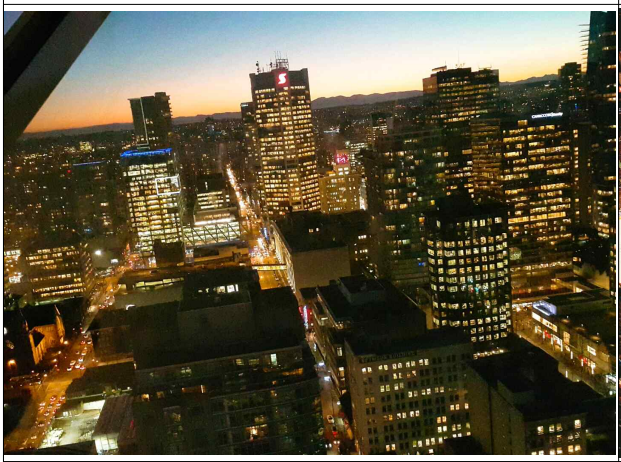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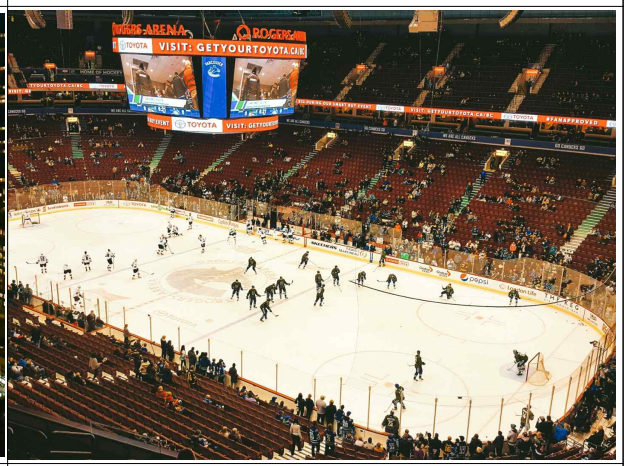
출국전에 배정받은 홈스테이 부모님과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무엇을 챙겨가야 할지 물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홈스테이 활동을 하면서 지켜야할 규칙도 물어보는 것이 좋다. 한국보다 춥지는 않지만 그래도 초겨울이라고 생각하고 두꺼운 옷들을 챙겨가는 것이 좋다. 학교에서나 스타벅스, 홈스테이집 등에서 와이파이가 있어서 사용하지만 학교활동 외에 다른 곳을 가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필요로 하니까 유심칩 1G가 정도를 한국에서 구입해서 가는 것을 추천한다. 학교에서 Curling, Snowshoeing은 추운곳에서 활동하는 것이므로 장갑이나 방수바지, 따뜻한 신발을 챙겨야 한다.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므로 꼭 우산을 챙겨야 한다.
그리고 배정받은 홈스테이 마다 다른데 점심을 거의 샌드위치로 챙겨주시므로 김, 고추장, 라면을 가져가는 것이 좋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어학연수를 계속 가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갔다온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지원하게 되었다. 면접을 보고 붙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3주 동안 잘 생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캐나다 가서 바로 영어로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지낼수록 영어로 말하는 것이 조금씩 익숙해졌다. 첫주는 시차적응과 처음 홈스테이생활에 대한 적응이 힘들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같이 온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시간이 엄청 빨리지나가 3주가 너무 짧게 느껴졌다.
어학연수를 하면서 같이 간 친구들과도 그리고 Langara에서 만나 학생들과도 친해 질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내가 가보고 싶은 곳도 갈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
그래서 3주가 짧다고 생각해 교환학생도 생각해보게 되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table>
<tr><td> </td><td> </td></tr>
<tr><td>Granvile Island</td><td>Stanley Park</td></tr>
<tr><td>
</td><td>  </td></tr>
<tr><td>China Town</td><td>Victoria</td></tr>
<tr><td>  </td><td> 
</td></tr>
<tr><td>Harbour Centre</td><td>IceHockey Game</td></tr>
</table>